잇단 문예지 창간, 문학 부흥 이끌까

'인간과 문학'·'포지션' 등 세상과 소통

소설·시·가톨릭 무크지 등 출판계 주목

출판의 위기, 문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자본의 논리에 문학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돌아보면 문학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늘 위기였다.

문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상황에도, 최근 문예지 창간이 봇물을 이루면서 문단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소설 전문 문예지 '소설문학', 시 전문 문예지 '포지션', 가톨릭 무크지 '가톨릭문학', 종합문예지 '인간과 문학'등 다양한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한 문예지가 창간돼, 침체된 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탈문단, 탈이념, 탈권위…. 창간된 문예지가 지향하는 문학적 코드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출판사 북인이 발행하는 '소설문학'은 기존의 계간지와는 차별화된 방식을 내세웠다. 우선, 원고를 청탁하지 않는다.

원로와 중진 작가들의 추천작, 신인작가와 중진작가들의 투고 작품을 게재한다. 한마디로 신인작가를 뽑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능은 있으나 발표 지면을 얻지 못하는 신인이나 지방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창간호에는 박인홍의 신작 '흰색에 가까운 옅은 회색'을 수록하였고 '특집 대담'은 김이은 소설가가 맡았다.

서정환씨가 발행하는 '인간과 문학'은 인간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문학의 재건에 초점을 두었다. 인터넷 문화 혹은 영상매체로 대변되는 하이퍼텍스트 문학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학제간 교류와 발표의 장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창간축시로 황금찬의 '구름밭의 하늘나무'를 실었고, 작가 재조명 코너에서는 작가 이원규와 작품 '포구의 황혼'을 다각도로 접근했다.

시인 차주일씨가 발행하는 '포지션'은 '문학적 수월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문예지의 권력화를 지양하고 자성 높은 작품을 파급해 우리의 감춰진 감정을 발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어떤 시를 옹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와 이수명·장이지 시인과 김영희 평론가가 기고를 했다.

문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상황에도, 최근 문예지 창간이 봇물을 이루면서 문단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좌로부터 '한국 가톨릭 문학'·'인간과문학'·'소설문학'

문학수첩에서도 문예지를 창간했다. 시인이자 발행인인 김종철 씨가 발행하는 '한국가톨릭 문학'은 문학을 통한 영성을 추구한다. 한국가톨릭문인회장이기도 한 김 시인은 "문학과 신앙이라는 공통된 화두로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세상의 어둠으로 고통 받는 대중에게 '사랑'과 '희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집 주제인 '한국문학과 영성문학' 에는 구중서 평론가의 '존재와 의미의 문학', 조창환 시인의 '가톨릭문학과 생명사상', 유성호 평론가의 '현대시와 종교적 상상력'이 수록됐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백민영 작 'Improvise a lan'

135명 작가, 8가지 시각예술

국민대 동문전 다음달 2일까지 고흥 남포미술관

고흥 남포미술관은 다음달 2일까지 국민대 시각분야 동문 기획전시 '여덟 개, 그림자의 남쪽(The Southern Slopes of 8 Shadows)'전을 연다.

국민대 예술대학과 조형대학 출신의 시각예술분야 8개 학과(금속공예, 도자공예,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의상디자인, 공업디자인, 입체미술, 회화) 13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는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3~17일, 2부는 18~5월2일까지 진행된다.

국민대 시각분야 동문 기획전시는 신진작가와 대학원생, 디자이너들을 미술관 무대로 등용해 주는 전시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사제간, 동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의 061-832-0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악그룹 아이리아와 '감성 충전'

'천원의 낭만' 오늘 문예회관

1000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4월 행사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감성 콘서트'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의 초대 손님은 퓨전국악 그룹 '아이리아'다.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등 4명의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와 1명의 보컬로 이루어진 국악 그룹 '아이리아'는 민요와 판소리를 기본으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한계를 허물며 다양한 음악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밝고 신나는 느낌의 펑키 리듬과 전통적인 느낌의 선율이 조화를 이룬 'Replay', 밀양 아리랑을 주제로 한 기악 합주곡 '랩소디 인 밀양',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에 관소리의 창법을 가미한 '사랑가', '빛고을 아리랑' 등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 스트링 앙상블도 출연한다.

티켓은 공연 당일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며 매월 두번째주 월요일 시민들을 찾아간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봄 하모니' 선물

정기연주회 12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의 객원지휘자는 김동혁(성결대 겸임교수)씨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와 바이마르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씨는 귀국 후 연세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수원대와 추계예대에 출강중이다.

김 지휘자는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작품 97',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비올라 협연 무대가 눈길을 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비올리스트 김영도씨가 바르톡의 '비올라협주곡 작품 120'을 협연한다.

서울대 졸업 후 독일로 떠나 쾰른 음대에서 수학한 김씨는 브루노 발터, 로린 마젤 등

김동혁

김영도

이 지휘봉을 잡았던 오랜 역사의 Deutsche Oper Berlin 부수석으로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서 듣는 독일의 낭만

서현일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피아니스트 서현일은 요즘 지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젊은 연주가 중 한명이다. 광주예고 2학년 재학중 독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하며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그는 한국에 들어와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광주시향, 대전시향 협연 무대 등을 통해 클래식 팬들을 만났었다.

2010년 귀국한 후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한 서씨가 독주회를 마련했다.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연주회는 여러 솔리스트들의 반주자로 참여하거나, 듀오 콘서트와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에서 열었던 하우스 콘서트 등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왔던 서씨의 본격적인 첫 독주회다.

독주회 레퍼토리는 10여년간 머물렀던 독일의 낭만 음악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명인 프로코피에프의 곡으로 구성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만의 '환상소곡집 작품 12',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1번',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 7번'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내일 '여성과 돈' 인문학강좌

'돈'을 주제로 올 한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4월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는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이 '여성과 돈'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씨는 유럽, 미국, 한국 사회의 노동의 의미와 관점을 소개하고, 노동을 어떻게

하종강

가르치고 배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문의 062-670-054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웨딩홀 새단장 기념" Special 신양 웨딩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쉽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 시 10% DC
가족모임(돌잔치, 고희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 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 품목 20% DC

New 맴버쉽 특별모집!! 휘트니스 Gold 멤버쉽,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쉽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 로 모십니다.

Shin Yang Park Hota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